

2024 대구오페라하우스 시즌오페라

C. F. Gounod
Faust
파우스트

DAEGU OPERA HOUSE

2024 대구오페라하우스 시즌오페라

C. F. Gounod
Faust
파우스트

DAEGU OPERA HOUSE



목차 Contents

03

개요 Summary

04

인사말 Greetings

05

작곡가 소개 Composer

06

작품 소개 Exposition of <FAUST>

08

줄거리 Synopsis

11

연출의 글 Director's Note

12

무대디자인 Scenic Design

14

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16

주요제작진 Creative Team

18

출연진 및 출연단체 Cast

20

제작진 Staff

28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30

2024 대구오페라하우스 시즌오페라

Faust 파우스트

2024. 4. 19(금) 7:30pm - 20(토) 3pm / 26(금) 7:30pm - 27(토) 3pm
대구오페라하우스

개요

작곡 샤를 구노, 1818~1893

대본 질 바르비에, 미셸 카레

원작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

배경 독일, 라이프치히

초연 1859. 3. 19 프랑스 파리 리리크극장

형식 5막

언어 프랑스어(한글 / 영문자막 제공)

주요 제작진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김광현

연출 이희수

출연진(출연날짜 순)

파우스트 Ten. 신상근, 석정엽

메피스토펠레스 Bass Bar. 사무엘 윤,
Bass 전태현

마르게리트 Sop. 이혜진, 김진솔

발랑탱 Bar. 김만수, 이호준

바그너 Bass 신명준

시에벨 M.Sop. 이재영, 김보라

마르트 M.Sop. 이아름, 김예은

디오오케스트라

대구오페라콰이어

팀.베이비슬로

극단 늘해랑

Information

Composer Charles-François Gounod

Librettist Jules Barbier, Michel Carré

Form 5 act

Language French(Korean / English Supertitle)

Creative Team

Artistic Director Chung Kabgun

Conductor Kim Kwanghyun

Director Lee Hoesoo

Cast

Faust Ten. Andrea Shin, Seok Jeongyub

Méphistophélès Bass Bar. Samuel Youn,
Bass Jun Taehyun

Marguerite Sop. Lee Hyejin, Kim Jinsol

Valentin Bar. Kim Mansoo, Lee Hojoun

Wagner Bass Shin Myeongjun

Siebel M.Sop. Lee Jaeyeong, Kim Bora

Marthe M.Sop. Lee Arum, Kim Yeeun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Daegu Opera Choir

Team.BABYSLO

Theater Company Neulhaerang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갑균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종합예술의 꽃, 오페라 관람을 위해 방문해주신 관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대구오페라하우스 시즌 두 번째 작품은 독일문학의 거장 괴테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파우스트' 중 1편을 원작으로 한 줄거리에 프랑스 작곡가 구노의 음악이 더해져 탄생한 오페라 <파우스트>입니다.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아리아와 합창, 그리고 화려한 발레 장면 등으로 프랑스 정통 오페라의 매력을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작품입니다.

1859년 파리 초연 당시 관객들에 큰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오페라이지만, 국내에선 전막으로 자주 공연되는 작품은 아닙니다. 대구에서도 14년 만에 올려지는 뉴 프로덕션으로 오페라 전문 제작극장의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했습니다. 지휘자 김광현, 연출가 이희수, 독일 궁정가수 칭호를 받은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을 비롯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최고의 성악가들과 연주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번 작품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프로덕션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페라 <파우스트>에 이어 5월에는 프랑스 혁명을 소재로 한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 8월에는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그리고 국립발레단 초청 <돈키호테>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구 오페라하우스의 시즌 공연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샤를 구노 Charles-François Gounod

1818. 6. 17 - 1893. 10. 18

샤를 구노(Charles Gounod)는 1818년 파리, 화가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다섯 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밑에서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 교육을 받았다. 그 후 18세가 되던 1836년 파리음악원에 입학한 구노는 대위법과 작곡법을 공부하고 3년 뒤 칸타타 '페르낭'을 작곡하여 '로마 대상 Prix de Rome'을 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로마에서 유학할 기회를 얻게 된 구노는 이 시기 팔레스티나의 교회음악에 영향을 받아 성직자가 되기를 꿈꾸며 멘델스존의 누이 파니를 통해 독일 교회음악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유학에서 돌아온 구노는 친구의 권유로 고대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탁월한 여성 서정시인 '사포'를 주인공으로 한 첫 오페라 <사포 Sapho(1851)>를 발표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이어 발표한 <벼락치기 의사 Le médecin malgré lui(1958)> 역시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실패를 거듭하던 구노는 1859년 3월 19일 발표한 오페라 <파우스트>를 통해 비로소 첫 성공을 맛보게 된다. 프랑스 오페라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된 작품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꼽히는 오페라 <파우스트>는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독일에 실존했던 파우스트 박사의 전설에 영감을 받아 전 생애를 바쳐 쓴 희곡 '파우스트, 비극 1편'을 기반으로 한다. 프랑스의 극작가 미셸 카레는 이를 기초로 '파우스트와 마르케리트'라는 연극 대본을 작성하였고, 후에 질 바르비에와 함께 <파우스트>의 대본을 완성하게 된다. 이 작품은 프랑스 오페라 특유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작곡가 구노에게 큰 성공을 안겨주었으며, 구노는 이 작품을 통해 프랑스를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로도 인정받게 된다. 특히 1975년까지 파리 오페라극장에서만 2천 회 이상 공연되기도 했다.

이후 구노는 그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셰익스피어 희곡 원작의 <로미오와 줄리엣 Roméo et Juliette(1867)>을 발표하였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로미오와 줄리엣> 작곡 이후 자신이 사랑했던 교회음악에 몰두한 구노는 '아베마리아' 같은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으며, 1893년 죽은 손자를 위한 '레퀴엠'을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1893년 파리 근교의 생 클로드에서 세상을 떠난다.

괴테는 철학의 무게를 담았고, 구노는 세상의 인기를 붙여넣었다.

1808년,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의 '파우스트'의 1부가 세상에 나오자 반응은 엄청났다. 19세기 오페라 전문가인 영국의 음악학자 휴 맥도널드는 “괴테의 '파우스트'만큼 낭만주의 음악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문학 작품은 없었다”라며, “'햄릿'이나 '로미오와 줄리엣'조차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1814년, 17세의 천재 작곡가는 그레첸(마르케리트)의 심정을 담은 노래를 작곡하고, 괴테를 향한 경애의 마음을 담아 곡을 그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는 누구였나. 바로 슈베르트(1797~1828)였다. 하지만 지금이나 슈베르트의 명성이 음악사에 남아 있을 뿐, 당시 젊은 무명 음악가에 불과했던 그의 행동은 괴테에게는 아무런 감응도 일으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희곡 '파우스트'에 곡을 붙인 작곡가들의 결과물이 쇠도했기 때문이다. 파우스트는 15~16세기에 독일에 실존한 인물이다. 괴테는 그의 존재와 이야기에 영감을 얻어 60여 년에 걸쳐 '파우스트'를 완성했고, 기라성 같은 작곡가들이 이야기에 음표를 붙였다. <파우스트의 겁벌>을 쓴 베를리오즈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파우스트'를 24살에 처음 접했을 적에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손에서 뗄 수가 없었다. 밥을 먹을 때도, 극장에서, 거리에서도, 모든 장소에서 멈추지 않고 읽었다.” 그렇게 영감이 차올랐고, <파우스트의 겁벌>은 순식간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도 서신에 괴테를 향한 존경과 경애의 마음을 담아 보냈다. 이 외에도 보이토의 <메피스토펠레>, 부조니의 <파우스트 박사>,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겁벌>,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 등이 <파우스트> 원작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왔다.

세상의 인기와 흐름 속에서 변화의 옷을 입다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사를 구노(1818~1893)의 <파우스트>이다. 구노가 활약하던 19세기는 이미 이탈리아 작곡가들이 건국한 오페라 제국이 절정에 달했을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작곡가 구노의 <파우스트>는 비제의 <카르멘>과 함께 자주 공연되는 대표적 오페라로 자리 잡았다. 초연은 1859년, 공연장은 프랑스 테아트르 리리크(Theatre Lyrique). 19세기 프랑스 오페라의 중심이었던 이 극장(Theatre Lyrique)은 노래하는 레치타티보 대신에 일상적인 대사와 말을 사용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구노의 <파우스트>는 브와뒤(1775~1834)가 작곡한 <하얀 여인>에 이어 극장 최고의 히트작이 되었다. 처음에는 극장의 관례에 따라 레치타티보 부분이 낭송조의 레치타티보가 아닌 대사로 되어 있었으나, 후에 레치타티보를 넣어 오늘날의 <파우스트>가 되었다. 이처럼 구노는 세상의 흐름과 관심을 살펴보고 몇 번의 개정을 가했고, 이 과정을 통해 1869년 파리 오페라하우스(Le Palais Garnier)에서 재공연되었다. 무엇보다 독일의 문호가 낳은 이야기는 점점 프랑스화 되었다. 1막 마지막의 왈츠 장면, 2막 거리의 축제 장면, 5막 발푸르기스의 향연 등에 프랑스 오페라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춤(발레)의 장면이 보강되었다. 작품의 크기도 화려한 볼거리와 대형 무대를 지향하는 그랜드 오페라의 옷을 입어갔다. 1893년, 구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오페라는 무려 1천 회나 거듭되는 놀라운 공연기록을 남겼다. 그 후로도 인기는 식지 않았다. 세기의 테너 카루소는 데뷔 음반을 <파우스트>의 아리아 '정결한 집'으로 장식하기도 했다. 우리가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유다.

인물의 상징성보다, 세속의 드라마를 입다

구노의 <파우스트>는 괴테의 원작 중 1부를 요약해 담은 것이다. 괴테는 인물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았다.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관객들이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어야 하는가를 살핀다. 파우스트는 신학, 철학,

법학, 의학 등 여러 학문을 통하여 우주의 지배원리를 깨닫지만, 백발의 노인이 된 후, 이러한 학문의 부질없음에 회의를 느끼고 목숨을 끊으려 한다. 이때 나타나 그런 그에게 젊음과 영혼의 거래를 제안하는 메피스토펠레스는 고통과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존재다. 본능만으로 현세를 살아갈 수 있는 파괴적 존재. 그는 부정과 불신, 회의와 소멸 등을 상징한다. 구노는 주인공 파우스트뿐 아니라 마르케리트의 몰락과 구원, 메피스토펠레스의 시험 등 원작이 지닌 도덕적이고 상징적인 면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카르멘>이나 <맥베스>처럼 연극의 원작을 오페라로 옮길 때는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노와 대본가(쥘 바르비에, 미셸 카레)는 파우스트와 마르케리트에 초점을 맞추면서 원작으로부터, 그리고 '괴테적 무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괴테 특유의 철학적 가치보다 드라마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흥미로운 것은 괴테의 파우스트보다 구노의 파우스트가 더욱 파렴치범으로 강조된 점이다. 원작은 마녀의 부엌 장면에서 파우스트가 마녀의 약을 마시고, 마르케리트를 사랑하게 된다. 따라서 파우스트의 사랑은 약의 효과이지 그의 진실한 마음이 아니다. 그러나 오페라에선 이 장면이 생략되었다. 파우스트는 약을 먹기 전에 메피스토펠레스가 잠시 보여준 마르케리트의 모습에 반해 악마와의 계약서에 서명한다. 따라서 원작의 파우스트가 영문도 모른 채 약을 먹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오페라에서는 마르케리트의 환영을 보고 그녀와의 사랑을 위해 악마와 계약하고 약을 마신다. 파우스트를 선택과 의지의 존재로 만들어, 그가 5막의 장시간을 이끌고 가게 하는 것이다. 1832년에 괴테는 죽었다. '파우스트'의 명성은 식지 않았고, 1부를 잇는 2부가 출간되었다. 잠시 오페라의 줄거리는 잇고 괴테가 나온 2부의 이야기를 들춰본다.

오페라에 들어가지 못한 괴테의 원작 일부

1부에서 마르케리트의 비극에 절망한 파우스트는 아픔을 알프스의 자연으로 치유한다. 그는 독일 황제의 궁정에서 그리스 전설의 미녀 헬레네를 불러냈는데, 파우스트는 그녀에게 매혹되어 마침내 헬레네와 결혼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이포리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아이는 하늘을 날려다가 바위에 떨어져 죽게 되고, 이 슬픔 때문에 헬레네도 저승으로 돌아간다. 독일로 돌아온 파우스트는 반란군을 진압한 공로로 불모지를 하사받는다. 하지만 100세가 된 파우스트에게 근심의 정령이 접근해 와 그를 맹인으로 만든다. 그러나 파우스트의 심안은 더욱 밝아지고, 자신을 둘러싼 마법을 물리칠 결심을 하지만, 그는 이내 숨을 거둔다. 천사들이 그런 파우스트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이처럼 새로운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으니 구노의 오페라도 1부를 이어 2부를 내놓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오페라 <파우스트>는 괴테가 남긴 절반의 이야기만 안고도 오페라사에 명작으로 안착했다. 구노는 파우스트와 마르케리트의 에피소드에 무엇을 더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때문에 '파우스트'의 가치를 수호한 이들에게 구노는 분노를 샀다. 특히 마르케리트의 순수함과 신성함은 오페라에선 훨씬 떨어진다. 원작에서 메피스토펠레스는 마르케리트의 순수함에 대해 파우스트에게 뭐라 했던가.

“저 애요? 그 아이는 신부에게 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오는 길이지요. 내가 고해소 옆을 지나다 엿들어보니 정말 순진하기 짝이 없는 아이더군요. 아무 죄도 없으면서 고해하러 갔으니 말입니다. 저런 아이에게는 나도 힘을 쓸 수 없다고요.” 이처럼 원작의 마르케리트는 악마적 존재도 손을 쓰기 어려운 완벽한 순수함의 상징이다. 반면 오페라에서는 이 정도까지 그녀의 순수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한편 대중은 구노의 <파우스트>에 담긴 비극적 사랑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함을 느꼈다.

감상자의 감정과 몰입을 증폭시킨 '구노적 장치'

원작과 오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시에벨(메조소프라노)의 존재다. 원작에서 시에벨은 아우어바흐 술집에서 바그너(베이스)와 술을 마시다가 메피스토펠레스와 시비가 붙는다. 그에게 주어진 역할의 전부이다. 그러나 오페라에서 시에벨은(파우스트에게 마르케리트를 빼앗기긴 하지만) 마르케리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적극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파우스트가 마르케리트를 떠난 뒤에도 시에벨은 마르케리트를 찾아가 변함없는 자신의 마음을 선보인다. 하지만 마르케리트의 마음은 오직 파우스트를 향해 있다. 결론적으로 괴테의 원작에선 스쳐 가는 인물이 구노의 오페라에선 상당히 중요한 조연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에벨에 대한 변화는 구노와 대본가의 아이디어였다.

시에벨의 존재는 오페라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바그너의 <탄호이저>에서 방랑자 탄호이저와 착실한 볼프람이 대조를 이룬다. 관객 입장에서 '선한 자'의 편을 들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모범적인 볼프람과 엘리자베트의 만남이 정상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극적인 갈등은 엘리자베트가 볼프람을 따돌리고 탄호이저와 사랑에 빠지며 더욱 고조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실한 시에벨의 사랑을 저버리고 파우스트와의 뒤틀리고 그을린 사랑을 선택한 마르케리트의 고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큰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그만큼 오페라가 점입가경이 될수록 파우스트의 '악마성'과 마르케리트를 향한 답답함과 연민이 증대된다. 따라서 원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상자의 감정을 오페라 <파우스트>는 시에벨을 통해 배가시킨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오페라를 음반으로만 듣는다면 시에벨의 목소리로부터 혼란이 올 수 있다. 여성 성악가인 메조소프라노가 그 역을 맡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노 당시에 오페라에서 여성이 젊은 남자의 역을 맡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의 오페라 <장미의 기사>에서도 귀족 옥타비안 역을 메조소프라노가 맡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작품이 주는 생각과 반성의 저울

구노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이 오페라는 지금도 오페라극장에서 정규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다. 성악가들을 돋보이게 하는 아리아의 총알도 충분히 장전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 체칠리아 미사곡을 연상시키는 장중한 합창은 무대를 가득 메우고, 찬란한 색채와 물결치는 듯한 발레의 장면도 눈을 현혹시킨다. 청순하면서도 탐욕에 눈이 먼 '보석의 노래'도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베이스의 저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메피스토펠레스의 '금송아지의 노래'도 작품의 인기를 체감하게 한다. 때로는 우아함과 반응계를 오가는 교태스러운 선율이 뒤섞이기도 하고, 세속성과 관능미가 종교적이고 숭고한 노래로 스며들고 승화되기도 한다. 이렇듯 상반되는 여러 세계가 뒤엉키다가, 마지막에 천상의 합창이 구원의 감흥으로 무대를 채운다.

구노의 <파우스트>는 이러한 음악 외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아니, 무거운 교훈이 아니라 속세를 돌아보게 하는 사유의 힘이라고 해야 할까.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는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온 시간을 역류시키려는 것이다. 신의 섭리나, 인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역한 채 새롭게 얻은 삶과 시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타임머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삶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시간을 되돌려 보고 싶다는 상상을 해본다. 그만큼 인간의 삶은 언제나 파우스트적인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글 **송현민**(음악평론가, 월간 객석 편집장)

1막 파우스트의 서재

백발의 노인이 된 철학자 파우스트는 모든 학문을 섭렵하지만 인생의 허무함에 괴로워하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 한다. 이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파우스트는 명예도 권력도 아닌 젊음을 원한다고 고백한다. 이에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가는 대가로 파우스트에게 젊음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이 상황을 잠깐 파우스트가 주저하자 마르케리트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를 유혹하고 매력적인 마르케리트의 모습을 본 파우스트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2막 부활절 축제가 한창인 거리

화려하고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 속에 곧 전쟁터로 떠나야 하는 마르케리트의 오빠 발랑탱은 자신의 동생을 친구 시에벨에게 부탁한다. 이때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사람들의 손금을 보며 시에벨이 만지는 꽃은 시들어버리고 발랑탱은 누군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하자 이 모습에 화가 난 발랑탱은 칼을 뽑아 메피스토펠레스와 결투를 벌인다. 합창이 울리는 가운데 마르케리트를 기다리는 파우스트. 그녀가 나타나자 파우스트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마르케리트는 거절한다.

3막 마르케리트의 집 정원

마르케리트를 흠모하는 시에벨은 메피스토펠레스의 불길한 예언을 걱정하며 그녀에게 전할 꽃을 어루만진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시에벨의 꽃을 보자 보석 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집 앞에 놓아둔 채 이내 몸을 숨긴다. 꽃과 보석 상자를 발견 한 마르케리트는 상자를 열어 보석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이때 나타난 파우스트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마르케리트의 사랑을 얻어낸다.

4막 마르케리트의 방

파우스트의 아이를 임신한 마르케리트는 돌아오지 않는 파우스트를 위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때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그녀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발랑탱은 여동생의 순결을 앗아간 파우스트에게 복수를 하려 하지만, 파우스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메피스토펠레스와 악마의 합창이 들리고 마르케리트는 죄의식에 쓰러지고 만다.

5막 발푸르그스의 밤

마녀들이 하르트 산맥 브록켄에 모여 축제를 벌이고, 요염한 춤으로 파우스트를 유혹한다. 그 순간 마르케리트의 환영이 나타나고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감옥에 갇힌 마르케리트 앞에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탈출을 재촉한다. 정신이 혼미한 마르케리트는 파우스트의 손에 오빠 발랑탱의 피가 묻은 것을 발견하고 파우스트를 저주하며 숨을 거둔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르케리트는 영혼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구원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파우스트’는 실존했던 마법사(1480~1538)의 이름이다. 이 마법사의 이야기가 16~17세기 독일에서 ‘민중 소설’로 전해지며 유행을 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소재로 연극과 인형극 등이 만들어졌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자신에게 친숙한 이 이야기를 소재로 1772년 산문의 장면인 ‘흐린 날 들판’을 시작으로, 1832년 사망 직전까지 장장 60년에 걸쳐 ‘초고(初稿) 파우스트’(1775), ‘단편 파우스트’(1790), ‘파우스트 제1부’(1808) 및 ‘파우스트 제2부’(1832)의 4단계를 걸쳐 독일 문학의 정수를 완성했다.

오페라 <파우스트> 역시 괴테가 쓴 희곡을 바탕으로, 샤를 구노(Charles-François Gounod)가 1859년 작곡한 5막의 그랜드 오페라이며 파우스트 1편(Faust: der Tragödie erster Teil)을 각색한 미셸 카레의 연극 대본 ‘파우스트와 마르케리테’를 바탕으로, 질 바르비에와 미셸 카레가 프랑스어 대본으로 완성하였다. 파우스트의 철학적 고뇌가 강조된 괴테의 원작과 달리 마르케리테의 비극에 초점을 맞춰 독일어권에서는 ‘파우스트’ 대신 ‘마르케리테’라는 제목으로 불렸다.

독일 문학의 진수인 ‘파우스트’를 바탕으로 한 대본과 구노의 서정적이고 화려한 음악을 마주하며, 매력적이지만 독이 든 성배 같은 작품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연출가로서 많은 고민을 했다. 우선 무대 콘셉트는 ‘인류의 역사를 담아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인류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장소, ‘박물관’을 표현해 보고 싶었다. 여기서 말하는 박물관이란 유무형의 유산만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인류사(人類史) 전체를 담은 공간이자 인간의 삶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무대에는 정형화된 작은 박스들이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각각의 박스들은 인간들의 개별인 공간이며 각 개인에게 축적된 지식과 문화, 종교와 욕망 등을 담은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간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동질화된 형태로 쌓여있는 듯하지만, 서로 다른 질감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물을 품은 이질적인 공간들이기도 하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공간에 구속되기도 하고, 때론 그 틀 속에 갇혀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 틀에 갇혀 버린 인간들은 그 공간을 초월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 하늘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때론 모든 노력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초월적 공간과 능력 앞에 무력함과 공허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모든 감정과 행위들이 때론 작은 라이트 박스로, 때론 하늘에 닿으려는 끝을 알 수 없는 계단으로, 금빛 샵들리에로 인류의 유산을 품은 공간으로 무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세상을 밝히려는 수많은 라이트들이 뒤 무대와 상부에 자리 잡고 있다.

오페라 <파우스트>는 한 작가가 평생을 다해 완성한 희곡을 바탕으로 하며, 인간 본질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나에게 ‘아날로그(Analogue)와 디지털(Digital)의 충돌이자 만남처럼 느껴졌다. 마치 LED 등(Light Emitting Diode Lamp)과 필라멘트 등(Filament lamp)처럼... 후면 무대(Lear Stage)에는 필라멘트에 빛의 각도가 고정되어 있는 98대의 파 라이트(Parlight)를 상부 바튼(Light Batten)에는 구형 반사경과 프레넬 렌즈를 사용하여 테두리의 선이 분명하지 않고 부드럽게 퍼지며 둥근 빛을 내는 78개의 퍼넬 라이트(Fresnel light)를 행인 했다. 두 기종 모두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이며, 인간적인 느낌과 컬러를 가진 조명기 들이다. 이 수많은 조명기는 단순하게 빛을 내는 조명기로, 때론 중압감을 더하는 철제 미장센으로 사용된다. 또한 라이트 박스 역할을 하는 구조물(structure)들이나 T5 형광 램프는 디지털 특유의 인위적이고 직관적이며 원색적인 컬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런 두 빛의 충돌과 이질감 역시 이 우주의 만취군상(萬巢群象) 일뿐이다.

무대 의상 역시 시간성을 초월한 의상들이 함께 모여 있다. 누군가는 어떤 복식사를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행은 돌고 돌며 서로 다른 룩(look)이 믹스 매치(mix-match)되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마치 지구라는 큰 무대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각각의 공간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오페라 <파우스트>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하여 우주의 원리를 깨달은 노인이, 자신이 연구한 모든 학문들의 부질없음에 회의를 느끼며 “Rien”(아무것도 아니다, 무(無))이라는 허무한 심리 상태를 대변한 대사로 시작된다. 이런 그에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젊음과 영혼의 거래”를 제안한다. 여기서 파우스트가 말한 ‘젊음’이란 에너지, 퇴락, 즐거움이었다. 이 ‘젊음’은 마르케리트로 연결된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쁨의 원천인 마르케리트는 결국 파우스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자신을 버린 파우스트와 오빠 발랑탱의 죽음으로 실성하게 된다. 그런 그녀는 결국 자신의 아이까지 살해하게 된다. 파우스트와 마르케리테의 사랑은 19세기 후반 유행했던 데카당스(Decadent) 사조로 바라볼 수 있었다. 순수외 상징인 마르케리테는 파우스트와 만나며 자신의 오빠에게 저주받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악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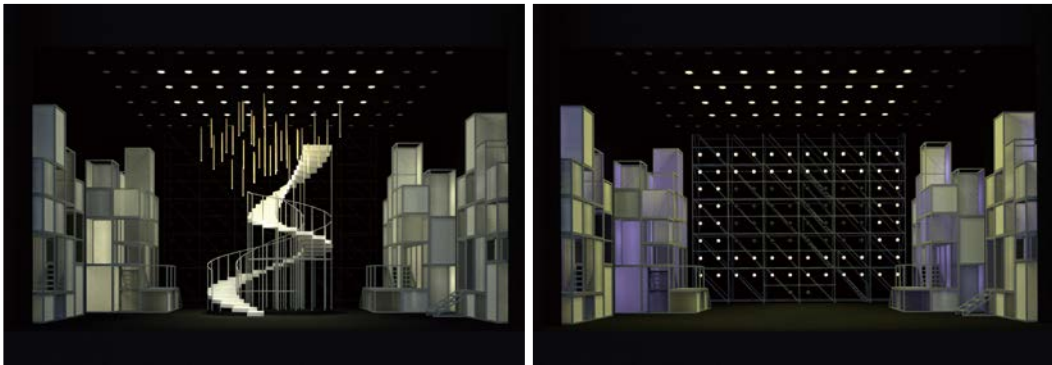
결국 그녀의 정결함은 그녀의 임신으로 인해 퇴폐와 타락의 상징이 되었다. 데카당스는 병적인 탐닉과 기괴한 것에 대한 흥미를 성적이고 관능적으로 표현하는 사조이다. 그녀의 순수함을 파괴하기 위한 메피스토펠레스의 계약으로 인한 잉태는 오페라에서 4막 교회 장면에 표현된다. 모두의 축복인 임신이 마치 주홍 글씨처럼 그녀에게 새겨졌고 메피스토펠레스에 의해 사랑의 결실은 악의 씨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5막 ‘발푸르기스의 밤’ 속 유희 또한 병적인 탐닉으로 표현된다. 파우스트가 악마와 한 영혼의 거래는 기존의 질서와 전통적 가치관을 거부한 방탕한 자유와 질서를 파괴한 혼란이며 결국 그를 파멸로 몰고 갔다. 데카당스 사조는 원칙과 질서를 획일화라고 생각했고, 무질서와 방탕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 했다. 그렇다면 파우스트는 이런 무질서와 쾌락적 탐닉 속에서 과연 어떤 진리를 발견하였을까? 연출로서 4막의 교회 장면과 5막의 마르케리테 승천 그리고 그 후 남은 파우스트에게 가장 많은 공을 들었다. 교회와 승천 모두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 장면은 빛과 어둠, 순수와 오염이 대비되는 공간으로 연출되었다.

괴테의 희곡 속 수많은 명대사 중에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라는 대사가 있다. 2024년 오페라 파우스트는 인간들의 노력에 대한 수많은 방향의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세상은 세상이 정한 유무형의 틀 속에 인간을 ‘정형화’ 시키려 하고, 이러한 정형성(定型性)은 인간의 창조성을 방해한다. 이러한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노력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모순, 선과 악의 충돌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는 그 경계에 선 우리들을 오페라는 표현하고 있다.

연출 이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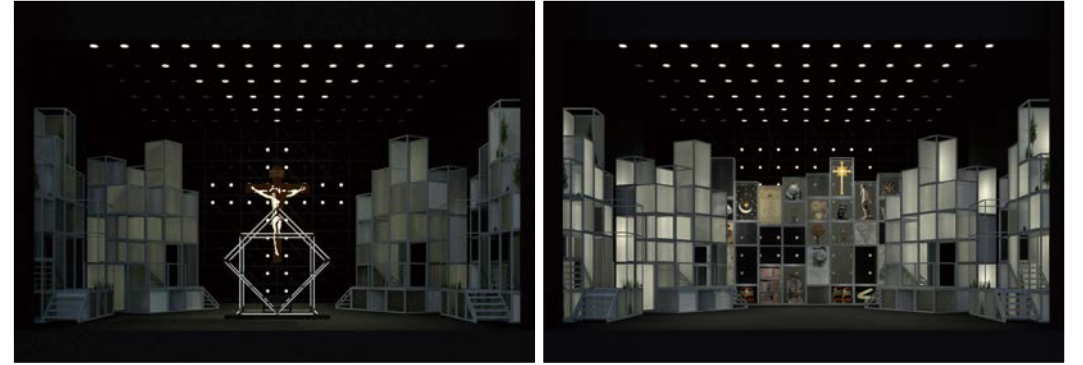
AC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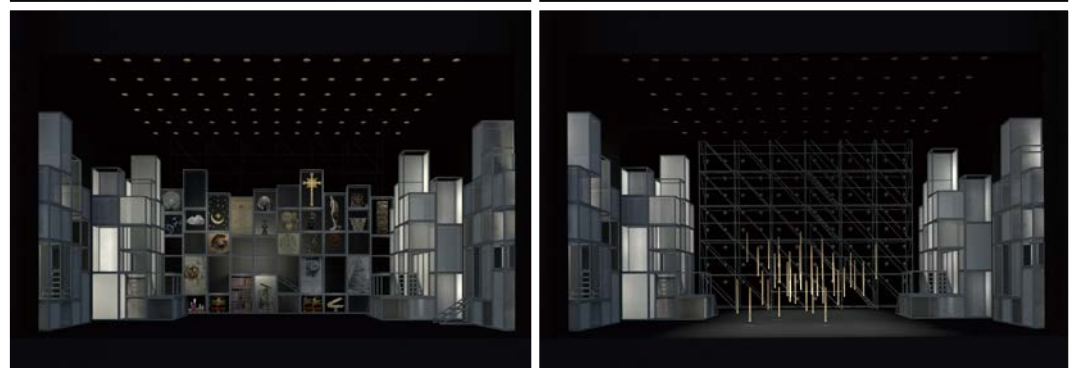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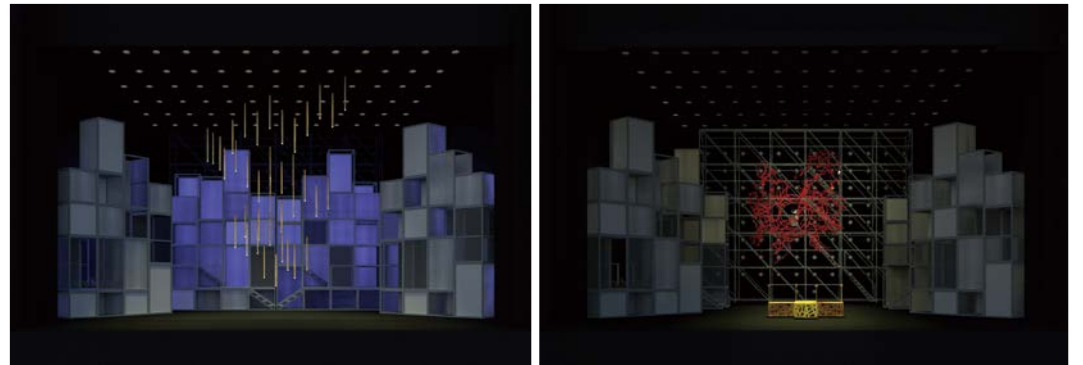
ACT 2



ACT 3



ACT 4



ACT 5



파우스트 Faust



메피스토펠레스 Méphistophélès



마르케리트 Marguerite



발랑탱 Valentin



마그너 Wagner



시에벨 Siebel



마르트 Marthe



병사들 Soldiers



남자시민 Male Citizen



여자시민 Female Citizen



남자귀족 Male Aristocrat



여자귀족 Female Aristocrat



남자무용수 Male Dancer



여자무용수 Female Dancer



예술감독 정갑균

Artistic Director Chung Kabgun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 연극학교 연출과 졸업,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에서 연출 수업
- 최초 국악오페라 <직지>, 독일 칼스루에극장 <나비부인> 연출 및 터키 아스펜도스 오페라&발레페스티벌 <라 트라비아타>, 이탈리아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에서 동양인 연출가 최초로 2년 연속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
- 오페라 <라 보엠>, <오텔로>, <운명의 힘>, <아이디>, <라 트라비아타>, <마탄의 사수>, <투란도트>,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리골레토> 등 150여 편 연출
-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역임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지휘 김광현

Conductor Kim Kwanghyun

- 예원,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지휘과 학사,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지휘과 석사 졸업
- 국내 국·공립 교향악단 지휘자 중 최연소로 원주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역임(2015-2021)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경기필, 대전시향, 대구시향, 부산시향, 부천필, 수원시향, 인천시향 등 국내 대부분의 국·공립 교향악단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필, 튀링겐 필, 체코 칼로비바리 심포니, 루마니아 크라이오바 필, 일본 규슈 심포니 등 국외 다수 교향악단 지휘
- 오페라 <가면무도회>, <돈 조반니>,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사랑의 묘약>, <카르멘>, <투란도트>, <피가로의 결혼> 등 국내·외에서 15편 이상 지휘
- 발레 <돈키호테>, <로미오와 줄리엣>, <백조의 호수>, <신데렐라>, <오네긴>, <지젤>, <호두까기 인형> 등 다수 지휘



연출 이회수

Director Lee Hoesoo

- 이탈리아 로마 국립예술원 무대디자이너와 최고점수 졸업 및 연출논문 최고 점수 졸업
- 체코 프라하 STATNI 오페라극장 주최 국제 연출 콩쿠르 아시아 최초 입상, 제6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연출상 수상, 제15회 대구국제오페라 축제 <아이디> 작품상 수상, 제19회 한국소극장오페라축제 제작 예술상 수상, 제14회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
- 제8회 터키 국제 지중해페스티벌 초청연출, 쿠바 하바나국립극장 <팔리아치> 한국 측 연출 외 <카르멘>, <호프만의 이야기>, <돈 조반니>, <잔니 스키키>, <마님이 된 하녀>, <나비부인>, <투란도트>, <라 트라비아타>, <토스카>,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라 보엠>, <피가로의 결혼>, <안나 볼레나> <안드레아 세니에>, <에르나니>, <돈 카를로>,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마술피리> 창작 <손양원>, <선비>, <결혼>, <미호연>, <까마귀>, <천생연분>, <청주아리랑> 외 다수 오페라 및 갈라 콘서트 연출
- 현)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출강



안무 권준철

Choreograph Kwon Juncheol

- (사)대한무용협회대구광역시지회 이사, (사)대구생활무용연합회 이사
-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강사, 홍콩예술대학 무용분과 초청 안무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NDSM 참여작가
- 제23회 대구무용제 연기상(작품명: Because of why), 제27회 대구무용제 연기상(작품명: final seconds)
- [주요작품] 제19회 전국차세대안무가전 대상·안무상·연기상(작품명: 심도하나), 2019 대구춤페스티벌 안무(작품명: 심도), 2020 아트피아 댄스페스티벌 LIFE 안무, 제33회 대구무용제 최우수상·안무상·연기상 (작품명: 지음)
- 현) Team.BABYSLO 무용단 예술감독, Deeper's Place 대표



파우스트 Ten. 신상근
Faust Ten. Andrea Shin

- 한양대학교 성악과, 이탈리아 노바라 국립 음악원, 라 스칼라극장 아카데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악원을 졸업,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프랑스 휘에이말메종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수학
- 부세토 보치 베르디, 한스 가버 벨베데레, 몽세라 카바예 등 국제콩쿠르 입상 및 Volksbunnen Bunnentaler, NRW 최고가수상을 수상
- 독일 베를린, 라이프치히, 슈투트가르트, 하노버, 프랑스 상제리제, 렌느, 스위스 루체른, 노르웨이 오슬로, 베르겐, 그리스 아테네 등 유수의 극장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돈 카를로>, <아이다>, <라 보엠>, <가면무도회>, <토스카>, <투란도트>,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카르멘> 등 주역 출연
-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동양인 최초 '로미오' 역으로 뉴욕타임스의 극찬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극장 <토스카>, 핀란드 헬싱키 국립극장 <돈 카를로>, 홍콩 오페라 <투란도트>,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오페라극장 <토스카> 등 예정
- 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파우스트 Ten. 석정엽
Faust Ten. Seok Jeongyub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수석 졸업 및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오페라과 졸업
- 중앙음악콩쿠르 2위, 난파전국음악콩쿠르 대상
- 유럽 및 아시아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청교도>, <세비야의 이발사>, <안나 볼레나>, <나사의 회전> 등 주역 출연
- 헨델 '메시아', 베르디 '레퀴엠', 드보르작 '스타바트 마테르' 등 오라토리오 독창자
- 예술의전당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국체 오페라축제, 세종문화회관, 안산문화의전당,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국립오페라극장, 독일 오페라극장 등에서 오페라 주역 출연
- 현)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겸임교수



메피스토펠레스 Bass Bar. 사무엘 윤
Méphistophélès Bass Samuel Youn

-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음악원, 독일 쾰른 음악원 졸업
- 2012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개막작 <방향하는 네덜란드인> 주역
- 2014 독일 쾰른 제3회 쾰른 오페라 가수상 수상, 제8회 대원음악상 연주자상, 2016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상)을 수상, 2018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이인선상 수상
- 사이먼 래틀, 주반 메타, 로린 마젤, 크리스티안 틸레만, 피에르 볼레즈, 세미온 비취코프, 야닉 네제 세갱 등 거장 지휘자들과 협연
- 런던 코벤트 가든, 베를린 도이치 오페, 드레스덴 젬퍼 오페, 밀라노 스칼라 극장, 파리 바스티유 극장, 마드리드 왕립극장, 바르셀로나 리세우 국립극장, 뮌헨 국립극장, 비엔나 오페라극장, 미국 리릭 오페라 시카고 등 세계 주요 극장 출연
- 2022 독일 주정부가 수여하는 궁정가수(Kammersänger) 칭호 수여
- 현)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



메피스토펠레스 Bass Jun 태현
Méphistophélès Bass Jun Taehyun

- 경북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졸업
- 독일 베를린국제음악페스티벌 콩쿠르 2위 등 다수 국내외 콩쿠르 입상
- 캐나다 밴쿠버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바질리오 역으로 북미 데뷔
- 독일 뉘른베르크국립극장 전속 솔리스트 역임 중 주역으로 출연한 오페라 <윌리엄 텔>과 <플라테>는 독일 국영방송(BR)을 통해 전 유럽에 생방송
- 체코 국제 아나첵 페스티벌에 동양인 최초 솔리스트로 참가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 베토벤 '9번 교향곡', 하이든 '천지창조', 헨델 '메시아', 베르디 '레퀴엠' 베이스 독창자로 활동, 독일 베를린국제음악페스티벌, 독일 뉘른베르크 Hirsvoegelsaal(히르스포겔살) 등 다수 초창독창회 개최
- 대한민국오페라70주년기념 '그랜드 오페라 갈라콘서트' 주역 출연
- 성남시향, 경기필, 대구시향, 원주시향 등 다수 협연 및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전예술의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성남아트센터,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극장, 일본 히로시마 등 국내외에서 활동
- 현) 단국대학교, 서울예고, 계원예고, 예원학교, 한국국제예술학교 출강



마르케리트 Sop. 이혜진
Marguerite Sop. Lee Hyejin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우등 졸업,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 음대 석사 및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최고 점수 졸업
- 독일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조반니 오메데오 재단 장학생
- 독일 쾰른 국제음악콩쿠르 우승 및 청중상, 폴란드 아다사리 국제 성악콩쿠르 1위 없는 2위 및 최고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상 수상
- 독일 마그데부르크 오페라극장 전속 솔리스트 역임
- 오페라 <리골레토>,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세비아의 이발사>,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팔스타프>, <마술피리>, <돈 조반니>, <티토의 자비>, <피터 그라임스>, <집시남작>, <헨젤과 그레텔>, <돈 파스칼레>, <호프만 이야기>, <세르세> 등 주역 출연
- 독일 서부독일방송 라디오 방송국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브루크너 오케스트라, 폴란드 오페라 크라쿠프 오케스트라, 한국 수원시향, 대구시향, 경북도향, 서울필하모닉 등 다수 협연 및 독일 도이체오퍼 베를린, 오스트리아 린츠주립극장, 대구오페라하우스,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 등에서 연주 활동
- 현)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마르케리트 Sop. 김진솔
Marguerite Sop. Kim Jinsol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 수료 및 이탈리아 꼬모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2022 이탈리아 엔조 소르델로 쿠네오 국제콩쿠르 3위, 2023 이탈리아 카푸칠레 국제콩쿠르 1위 및 청중상 수상
- 대구문화예술회관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 <라 보엠> 주역 출연
- 이탈리아 베르첼리극장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출연 예정



발랑텡 Bar. 김만수
Valentin Bar. Kim Mansoo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최고점수 입학, 최고점수 졸업), Scuola dell'Opera 오페라과정 졸업(사사 레오 누치)
- 이탈리아 보치 베르디아네, 루제로 레온카발로, 마리아 칼라스 국제콩쿠르 및 5개 콩쿠르에서 1위 및 다수 국제콩쿠르 수상, 제15회 대구국제오페라 축제 남자성악가상 수상
- Festival verdi 2014 Teatro Regio di Parma Orchestra Toscanini 협연 및 그라츠극장 오케스트라 협연
- 이탈리아 파르마, 피아첸차, 레조 에밀리아, 모데나, 페라라, 제노바, 바리, 볼차노, 코모, 파비아, 크레모나극장 및 헝가리, 그라츠, 일본, 중국 등에서 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운명의 힘>, <가면무도회>, <돈 카를로>, <라 트라비아타>, <루이자 밀라>, <시칠리아섬의 저녁 기도>, <라 보엠>, <나비부인>, <투란도트>, <잔니 스키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로베르토 데브뢰> 등 주요극장 주역 출연
- 현) 이탈리아 에이전시 아티스티카 및 KAN 엔터테인먼트 소속 성악가, 수성아트피아 솔리스트 대표



발랑텡 Bar. 이호준
Valentin Bar. Lee Hojoun

- 영남대학교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석사 졸업 및 베르첼리 시립음악원 오페라과 졸업, 발세시아나 아카데미 수료, 마리아나 코멘세 음악원 합창지휘 디플롬
- 파파노 국제콩쿠르 1위, 발세시아 국제콩쿠르 1위, 움베르토 조르다노 국제콩쿠르 1위, 베나미노 질리 국제콩쿠르 1위, 비오티 국제콩쿠르 2위, 마그다 올리베로 국제콩쿠르 2위, 피에로 카푸칠리 국제콩쿠르 2위 등 20여 개의 국제콩쿠르 석권
- 오페라 <사랑의 묘약>, <돈 파스칼레>, <카르멘>, <토스카>, <팔리아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라 보엠> 등 유럽 전역에서 데뷔 및 활동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바그너 Bass 신명준
Wagner Bass Shin Myeongjun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수석 졸업 및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 프랑스 툴루즈 콩쿠르, 이탈리아 엔조 소르델로, 루치아노 네로니 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 입상 및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제14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신인상 수상
- 이탈리아 베르디페스티벌 Teatro di Bologna, Reggio di Parma, Busseto 에서 오페라 <리골레토>, <오베르토> 주역 출연
- 오페라 <리골레토>, <돈 조반니>, <파우스트>, <맥베스>, <로엔그린>, <예브게니 오네긴>, <세비아의 이발사>, <라 보엠>, <마술피리>, <시몬 보카네그라>, <에르나니>, <아이다>,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삼손과 데릴라>, <나비부인>, <투란도트>, 창작 <춘향>, <선비>, <열애>, <천생연분>, <허황후> 등 다수 주역 출연
-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 현) 서울시립대학교, 동아대학교 외래교수



시에벨 M.Sop. 이재영
Siebel M.Sop. Lee Jaeyeong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교 성악전공 및 동 대학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 및 베르첼리 발렛티시립음악원 오페라과 최고연주자과정(Alto perfezionamento) 졸업
- 이탈리아 노바라 코차극장 아모아카데미 수료
- 프랑스 베지에국제성악콩쿠르 2위, 이탈리아 벨라노국제성악콩쿠르 3위, 이탈리아 주디타 파스타국제성악콩쿠르 특별상 수상 등 다수 콩쿠르 입상
-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나비부인>, <나부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라미코 프리츠>,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리골레토>, 창작 <심청> 등 출연
- 현) 경북예술고등학교 출강,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시에벨 M.Sop. 김보라
Siebel M.Sop. Kim Bora

- 영남대학교 성악과 수석 입학 및 졸업,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 최고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및 클라우 디오 아바도 시립음악원 석사과정 및 최고점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ARENA 아카데미 및 ADADS 오페라 전문연주자 과정, 멜로사 아카데미 수료 및 라스칼라극장에서 루치아나 세라, 루치아나 단티노 마스터클래스 수료
- 프랑스 파리 Prix d'Europe 콩쿠르 2위
- 프랑스 베르사유 베를리오즈 기념음악회 및 이탈리아 밀라노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 한인음악축제 초청 연주, 밀라노, 포르투갈, 핀란드, 프랑스, 파비아, 부다페스트 등 유럽 다수 초청음악회 연주
- 모차르트 '레퀴엠', '스타바트 마테레', 베토벤 '9번 교향곡' 독창자
- 오페라 <박쥐>, <나비부인>, <리골레토>, <세비아의 이발사>, <오텔로>, <라 트라비아타>, <피가로의 결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람메르 무어의 루치아>, 창작 찬기파랑가 <흙모>, <심청> 등 주역 출연 및 대구 오페라하우스 '금난새의 마티네 콘서트' 협연
- 현) 경북예술고등학교, 영남대학교 출강



마르트 M.Sop. 이아름
Marthe M.Sop. Lee Arum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졸업,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Master 졸업
- 세계적인 소프라노 세릴 스투더에게 발탁
- 프랑스 부르그뉴 국제콩쿠르 및 국내외 다수 콩쿠르 입상
- 오라토리오 카리시미 '예프테', 비발디 '글로리아', 모차르트 '대관식 미사', '레퀴엠', 베토벤 '합창 환상곡', '9번 교향곡', 멘델스존 '엘리아' 등 알토 독창자 연주
- 오페라 <오르페오>, <달의 세계>, <마술피리>, <일 트리티코>, <팔스타프>, <유쾌한 미망인>, <친구 프리츠>, <오이디푸스 왕>, <결혼>, <춘향전>, <게임오브찬스> 및 오페레타 <박쥐> 등 주-주역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마르트 M.Sop. 김예은
Marthe M.Sop. Kim Yeeun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졸업(사사 이화영),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석사과정 졸업(사사 Elisabeth Kovacs), 폴란드 국립쇼팽음악원 'From Chopin to Górecki' 과정 수료
- 독일 아우크스부르크극장, 운터하링극장 오페라 출연
- 국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콘서트하우스, 부산시민회관, 울주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 목포시립교향악단, 한경필하모닉, 부경필하모닉 등과 협연
- 헨델 '메시아', 바흐 '요한수난곡', '마태수난곡', '칸타타', 모차르트 '레퀴엠', 생상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등 오라토리오 독창자
- 오페라 <카르멘>, <수녀 안젤리카>, <루나부인>, <동물원> 외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잔니 스키기>, <심청>, <살로메> 주-조역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디오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음악감독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악보담당 이상원 공연담당 정은영 홍보담당 황재웅

Violin 1 박은지 류가현 이은영 홍재완 정수현 박민서 노선균 김재은 양수빈 김연정 이지애 정승혜

Violin 2 이지혜 장혜지 김예성 장유진 장지는 최혜지 장혜진 이지윤 박나연 손효진

Viola 박선영 김예송 김효원 이유미 하늘예린 조재형 조민지 전하민

Cello 강윤선 최재영 김형기 설예은 박소희 박소현 C. Bass 김석민 김지정 서한나 한채영

Fl 1 이한나 Fl 2 백선미 Ob 1 배민주 Ob 2 최규연 Cla 1 김민수 Cla 2 전다양

Bn 1 조혜연 Bn 2 조윤주 Hn 1 양삼영 Hn 2 김태우 Hn 3 송상호 Hn 4 김태수

Tpt 1 전성화 Tpt 2 이혜연 Tbn 1 김진욱 Tbn 2 이민정 Tbn 3 이상빈 Timp 권혜진

Perc. 이희정 허동훈 김소진 김도엽 Harp 우지현



대구오페라콰이어
Daegu Opera Choir

대표 김지영 지휘 김성환 단무장 배은경 트레이너 조소희 전재민 총무 김준년 사무단원 김애지 반주 류지원 임윤지

Sop. 강송지 박예람 박주은 서아영 신유경 안유진 이다영 이신유 이주은 정경진 김미성 정원정 조소희

Alto 권민선 권찬미 김서현 문은초 박수정 박지원 서지원 이진아 정주현 한혜원 김다빈 윤수빈 이윤화

Ten. 권익현 박재민 서영덕 손병확 이후영 임진성 지현태 김동현 박종민 윤덕환 정도영

Bass 김대인 문형우 박종섭 정민수 김남익 김주호 예채웅 이승훈 전이현 전재민 김준년

팀.베이비슬로
Team.BABYSLO

대표/총감독 권준철



극단 늘해랑
Theater Company Neulhaerang





무대디자인 신재희
Scenic Design Shin Jaehye

-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국립미술원 무대미술과 졸업
- 2006년 소극장 뮤지컬 <빙고> 무대, 의상, 소품디자이너로 데뷔
- 오페라 <나비부인>, <선비>, <윤심덕, 사의찬미>, <아이디> 외 뮤지컬 <파랑새>, <상자 속 흡혈귀>, <EBS 캐릭터쇼> 및 음악극 <정조와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푸른 수염의 시간> 등과 다수의 콘서트, 무용극 및 융복합극의 무대디자이너 및 미술감독으로 활동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뮤지컬스쿨 공연예술학과 외래교수 역임
- 2021년 제14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예술상 수상



의상디자인 신원선
Costume Design Shin Wonsun

-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기념 오페라 <노르마> 의상감독, 세이이운형문화재단 <청교도> 의상디자인, 국립오페라단 <토스카>, <팔리아치&외투>, <유쾌한 미망인>, <동백꽃 아가씨>, <윌리엄 텔>, <서부의 아가씨>, <라 트라비아타>,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일 트로바토레> 등 의상 조감독 및 세종문화회관 <투란도트> 디자인팀장, 서울문화재단 2022 노들섬 <마술피리> 의상디자인
- 뮤지컬 '셜록홈즈: 앤더슨가의 비밀', '셜록홈즈: 블러디 게임', 랭보, 블루레인, 클림트, 변론시리즈, 화가시리즈, 비더슈탄트, 붉은정원, 위월락유, THE MAN
- 국립창극단 '산불' 연극, 국립극단 '하전가', '밤의 사막넘어', 전주시립극단 '맥베스', '리어왕'
- 연예인 2PM, 원더걸스, 소녀시대, JYP, 신화, FT아일랜드 등 코디



분장디자인 이정수
Make-up Design Lee Jungsoo

- 한성대학교 대학원 패션예술학과 분장예술학 석사, 미국 Make-up Designory Special Make-up 과정 수료
- 국립오페라단 <안드레아 세니에>, <보리스 고두노프>, <마농>, <코지 판 투테> 등 다수 작품 분장디자인
- 중앙대학교 산업교육원 공연예술학과 무대분장 강사 역임
- 현) Main make-up 대표



영상디자이너 김장연
Graphic Design Kim Jangyeon

- 용인대학교 연극학과 무대미술(예술학사) 졸업
- 2014~2020, 국가직무능력표준(NCS)무대영상 자격검정 개발위원
- 미술 분야 진로탐색카드(영상디자이너)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오페라 <가면무도회>, <천생연분>, <처용>, <동백꽃 아가씨>, <투란도트>, <춘향> 외 다수, 국립발레단 <호미랑>, 뮤지컬 <주홍글씨>, <들풀2>, <날아라 박씨>, <스칼렛 핼퍼넬>, <환상의 커플> 등, 국립창극단 <장화홍련>, <메디아>, <숙영낭자전> 등, 국립극단 <아워타운>, <라오지양후 최막심>, <시라노 드 베르주락>, <안티고네>, <1984> 등 다수 영상디자이너



오페라코치 김민정
Opera Coach Kim Minjeong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피아노전공 졸업, 이탈리아 니콜로 피친니 국립음악원 피아노과 최고과정(오페라코치 전공) 수석졸업
- 국립오페라단, 서울대오페라연구소, 성남아트센터,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여러 단체에서 90여 회 오페라코치
- 서울대학교 강사, 수원대학교 객원교수, 대구가톨릭대 겸임교수 역임
- 현) 숙명여자대학교 외래교수, 대구오페라하우스 음악코치



반주 박선민
Accompanist Park Sunmin

- 영남대학교 피아노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마스터과정 수료
- 이탈리아 도니제티 아카데미 반주 디플롬
- 영남대학교 강사, 경북도립예술단 피아니스트 역임
-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등 수십여 편 오페라, 콘서트 반주 및 연주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피아니스트, 대구예술영재교육원 강사, 대구음악협회 이사,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지휘 김광현
 연출 이회수
 무대디자인 신재희
 의상디자인 신원선
 분장디자인 이정수
 영상디자인 김장연
 조명디자인 문길환
 안무 권준철
 무대감독 정진섭
 음향감독 차광석
 조명감독 최진영
 오페라코치 김민정
 반주 박선민
 자막/오퍼레이터 허성훈
 조연출 한진아
 조연출보 이서인
 소품수 이주연 석다연
 무대크루 김형준 구민우 이지윤 이경도 전진룡 김명준 소찬호
 원현지 임무수 이아영 이동원 정종극
 조명크루 정성태 정유진 금명정 조경빈 이수연 김효진 한규범
 음향크루 윤선영 남송은
 의상크루 양지은(팀장) 김나현 이지예 최지원
 분장팀 Main make-up 김영숙 정다운 장재우 조희진 이안나
 정다원 최소민 윤소영 윤다영 권도윤
 무대제작소 주식회사 풀굿
 의상제작소 (주)이재경무대의상
 소품제작소 백스튜디오
 영상촬영팀 에프에스미디어
 공연사진촬영 용스튜디오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관장 정갑균
 공연예술부장 김수정
 무대시설부장 주누리
 공연기획팀 정원철(팀장) 김영선 류가영 조하나 정유호 박지윤
 한규리 박세별 최보윤
 교육사업팀 김민정(팀장) 박형기 최서윤 최수민 박지예 강지윤
 무대예술팀 이효섭(팀장) 문길환 차광석 김태학 정진섭 박지율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이남문
 시설관리팀 강영구(팀장) 이철훈 장성훈 김경도 오준호

9기 오페라팬 9th Operafan
 권혜미 김수정 김은비 문보미 박수현 박인환 배순욱 백가은 윤희선
 이혜원 이혜인 임수진 장성민 장유빈 장조휘 정연균 정유경 정은별
 정지민 허진희

대구오페라하우스의 발전과 함께합니다

•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20주년 기념 특별멤버십 •

김창윤 김태용 김태언 김관영 서은자 이상호 백순기 민복기 김성미
이석화 진영민 김지영 남성희 하윤수 김용범 박근영 송준기 이춘희 김영길 최영철

• 대구오페라하우스 멤버십 •

김아미 유정임 조연옥(베르디 회원)
강철민 박주병 방혜영 성영희 허선 노진우(푸치니 회원)



www.daeguoperahouse.org